

# ‘천사의 손길’로 소중한 인명 구한 4명의 ‘하트세이버’

### 순천소방서, 5일 구급대원 4명에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

### 심정지로 맞는 위기의 순간, 꺼져가는 생명의불씨 되살려

사고 현장 등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린 구급대원 4명에 하트세이버 인증서가 전달됐다.

5일 순천소방서는 소방장 김현주, 오성환, 소방교 김상우, 전민욱 등 4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은 배지를 수여 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구급대원은 지금까지 하트세이버를 2차례 수여받아 귀감이 됐다.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로 살려낸 소방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수여 하는 상이다.

영광의 하트세이버 주인공들은 지난해 10월 9일 순천시 조곡동 호흡·맥박 없는 50대 남성 환자, 11월 27일 A 병원 환자분류소에

서 대기중 심정지가 발생한 60대 남성 환자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적절한 병원 선정 이송 등을 통해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하트세이버를 수상한 여러분이 살린 환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시민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위급환자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순천소방서는 매년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거나 손상을 최소화한 구급대원 등에게 세이버 명예를 부여해왔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 호반그룹·대아청과

## 해남군에 한파피해 복구지원금 1억 전달

역대 최강 한파로 겨울배추 생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호반그룹이 전남 해남지역 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해남군은 호반그룹과 대아청과에서 지난 겨울 한파로 피해를 입은 해남지역 겨울배추 생산 농가에 복구지원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해남군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명현관 해남군수, 박재욱 대아청과 대표,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전국 최대 겨울배추 산지인 해남군에서는 지난 1월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한파로 생산면적의 68%(1700ha) 이상, 1800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기탁금은 농가들의 피해소식을 전해들은 대아청과에서 3000만원(해남사랑상품권)을 기부하고, 호반그룹에서 7000만원(농협상품권)을 더했다. 해남군은 기탁금을 피해농가 중 저소득 가구와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읍면에서 500가구를 선정해 20만원씩 나눠줄 예정

이다. 대아청과는 서울 가락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배추 거래 물량의 70%를 해남에서 공급받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오랫동안 해남배추 유통과 판매에 도움을 준 대아청과와 호반그룹에서 다시한번 피해농가에 힘을 보태 줬다”면서 “농가에서 피해를 극복하는데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박재욱 대아청과 대표는 “이번 지원으로 한파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도매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과 대아청과는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호반건설은 농어업협력재단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억 원을 출연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파농가 돕기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박덕웅 박사 논문, 국제 학술지 게재

### 국제 학술지 'Foods'에 '엽채류 잔류농약과 위해성 평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박덕웅 보건연구사(이학박사)의 엽채류 잔류농약 연구 결과 논문인 '국내 최대 엽채류 생산지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수거한 1만7977건의 방대한 엽채류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안전성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간의 국내 최대 엽채류 생산지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서 수거한 1만7977건의 방대한 엽채류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안전성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3만6000여건의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530건에서 허용기준 위반 사례를 발견했고, 이 가운데 80.4%인 426건은 엽채류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는 15년이라는 세계 최장기, 최대 규모급의 엽채류 잔류농약 연구 결과 분석으로 학문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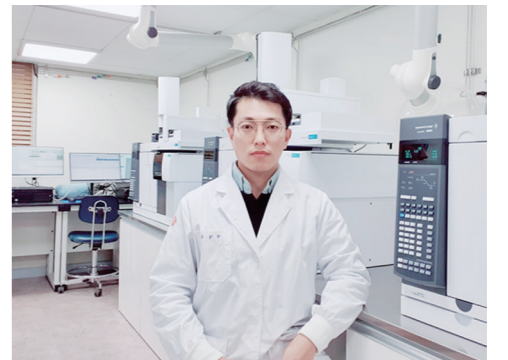
특히, 2010년 이전에 비해 최근 엽채류의 부적합 비율이 크게 낮아졌음을 밝혀낸 것은 눈

에 띄는 성과다. 과거에 비해 국내 다소비 엽채류인 상추, 깻잎, 시금치 등의 부적합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이들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또 15년 간의 검사 결과를 통해 주로 사용되는 농약이 반복 검출됐는데 특정농산물에서 특정 농약 성분이 허용기준치를 위반하는 경향이 있고 이들 잔류농약 성분과 검출 빈도도 장기적으로 추이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주요 검출 농약 성분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아울러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엽채류 15종이 전체 부적합 엽채류의 80%이상 차지했으며, 이들 엽채류 품목의 주의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농약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에 의한 인체 위해도는 낮았지만, 노약자가 음식 등을 통해 농약을 만성적으로 섭취하거나 살포 등에 의해 농약에 노출될 경우 인지기능 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농약 사용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박덕웅 보건연구사.

박 연구사는 5일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 분석을 통해 시민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로부터 높은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재근 원장은 "코로나19 차단에 불철주야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도 국제 유명 학술지에 등재된 연구원 위상을 대내외에 알렸다"며 "앞으로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면밀한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해 빈틈없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 청암대학교, 결혼이민자 3명 21학번 새내기 입학에 눈길

청암대학교 21학번 신입생 중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이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을 받은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자격취득을 통해 외국인으로서 입학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과에 입학하는 이들은 베트남의 부티찌미(31세), 티티투이(26세), 그리고, 중국의 왕설(33) 학생으로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한 사회준비반대로 대학입학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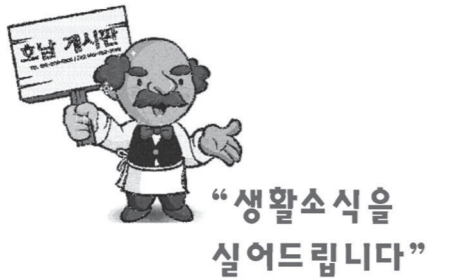
따라서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청암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 청암대학교 사형원 총장은 "다양한 문화 시대에 꿈을 펼치고자 청암대학교를 선택해 준 3명의 신입생이 글로벌시대에 여성 리더로서 다문화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신입생 부티찌미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언어 소통, 자녀 양육, 사회

생활,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너무 무거운 본인 모습에 힘들었지만, 대학입학을 통해 스스로 변화와 도전을 해 보는 기회가 되고자 입학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과 같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길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기관에서 현장 전문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안 내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노동상담소(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062-685-5293)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시스템 무상제공=13세 아동 및 정신 지체 장애인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 (062-232-1375)
-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주부,가족폭력,성,청소년 고민 등 (062-363-5599)
- ▲알고리즘상담 서비스 실시=인광알고리즘

- 답센터 무료 알코올 상담=술로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222-5666)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2-1331)
-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 연탄배달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이체 후원자,전남 거주자, 광주 장애인 사랑봉사회 연탄 100장으로 봉사 광주본부 (522-8909)
-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장애인 체육 동호인 및 선수를 모집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상담전화(1577-7976)
- ▲빛고를 한사랑 회원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2-374-5885, 010-2444-4500)
- ▲남녀 배구회원 수시모집=수시 (매주 월, 수,금,토요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학교 문의 (011-612-2112)
- ▲영상과 브레인 회원 모집=시나리오(8mm) 스티디 그룹, 읍저버, 드라마(구

- 성작가) 등 공동 창작활동 관심있는사람, 20~30대 응모가능, 40대는 경력자
- ▲빛고를 한사랑 회원 모집=영어 및 지적장애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 ▲평동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직원,자원봉사자 모집=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미술,만들기 등 예능에 소질있는분, 문의 062-363-5599
-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서비스 지원 (132,1577-8339)
- ▲광주·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우실분(010-4624-8787)
-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

- 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국가 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3-374-5885, 010-2444-4500)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지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 모집=초급반: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267-3700)
-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 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서비스 지원 (132,1577-8339)
- ▲광주·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

- 우실분(010-4624-8787)
-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제주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 (063-374-5885, 010-2444-4500)
- ▲국가인권 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 ▲오지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반: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 (062-267-3700)